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박물관 제8기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입니다!

이번에 상명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상명대학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실크로드를 따라 떠나는 도자체험여행 II

- 신청기간/방법 : 9월 18일(수)까지, 이메일(admmuse@smu.ac.kr) 접수
- 교 육 문 의 : 박물관 (02-781-7923)

일 시	주 제
9.23일(월) 18시~20시	동양 도자 역사 탐험 (방병선,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9.24일(화) 18시~20시	유럽 도자 역사 탐험 (조용준, 「유럽 도자기 여행」저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중앙박물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운영 상명대학교 박물관



지난 9월 23일-24일, 18시-20시 상명대학교 미래 백년관에서

상명대학교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실크로드를 따라 떠나는 도자체험여행 2”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23일에는 동양 도자 역사 탐험, 24일에는 유럽 도자 역사 탐험을 주제의 강연이었어요.

저는 9월 23일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방병선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동양 도자 역사 탐험 - 동양 도자 탐구'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동양 자기, 그중에서도 중국 자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대별 상황과 그에 맞는 도자 자기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나무 재를 이용한 재유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자기를 만들었고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시 정치적 상황, 환경, 기술의 발달로 변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강의 후반에 일본 자기 이야기들을 통하여

한-중-일 세 국가가 과거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사진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집중해서 강연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도자 탐구

방병선(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교수)

18세기 말 유럽에서 신기술에 의한 고강도 채색자기가 나올 때까지, 기술적으로 중국도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왜 중국인가.>

세계도자사를 보면 사실 중국보다 먼저 보다 단단한 그릇을 굽기 위한 방도를 찾아낸 것은 이집트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민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1000°C에서 1100°C를 마지노선으로 더 이상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없었다. 그릇을 구성하는 태토 자체의 내화도가 떨어지고 가마 구조도 적당하지 못했다. 대신 소위 소금과 유리를 결합한 소다유를 발명하여 그릇 표면을 코팅하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초의 유약을 내놓았다.

반면 중국인들은 단단하고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원료를 황하 일대 뿐 아니라 중국 남북방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화북 지방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도 1200°C 이상의 고온에도 끄떡없는 白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토가 있었다. 그러나 유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액체를 담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 화남의 여기저기에서 가마 안에서 땀감인 나무가 타면서 재가 그릇 표면에 우연히 달라붙어 후에 유리처럼 광택이 있고 방수의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중국인들은 나무 재를 이용한 재유를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자기를 만들

수업이 끝나자마자 강연을 들으러 가서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강연 전에 샌드위치, 커피와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박물관 측에서 제공해주셔서

즐겁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강연 전에 자료도 나눠주시고 ppt로 도자 자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강연이 진행되어서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방병선 교수님과 상명대학교박물관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새소식 상명대학교 박물관의 새소식을 확인하세요. 새소식 [교육모집] 실...

www.smu.ac.kr

#상명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 #대학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블로그기자단, #평창동박물관, #유럽의도자기, #자기, #도자기, #유럽자기, #실크로드를따라떠나는도자체험여행